

‘민족대표 33인’ 양한묵 선생 묘 방치... ‘부끄러운 3·1절’

호남서 한 분 뿐인 대표·33인 중 유일하게 감옥에서 순국한 애국지사
화순군 영남리 묘소 봉분 훼손에 관리 엉망 ... 참배객 “고개 못 들겠다”

화순군에 있는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 양한묵 선생 묘소가 파헤쳐지는 등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제대로 관리하긴커녕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봉분의 흙이 몽땅이로 떨어져나간 것은 물론 비석부터 묘소로 올라가는 입산로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묘소를 관리해야 할 국가보훈처와 화순군은 매년 화순읍 남산공원에 별도로 만든 추모비에서만 제향을 올리느라 정작 양 선생의 유해가 묻힌 묘소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8일 찾아가 화순군 영남리 양 선생 묘소는 도저히 참배객을 맞을 상황이 아니었다.

봉분은 산짐승이 파헤친 듯 양 측면의 흙이 떨어져나가 잔디 뿌리가 보일 지경이었으며, 봉분 인근 잡초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풀이 어지럽게 자라나 있었다.

“지강 거사 양공 한목지묘라고 적힌 70cm 크기의 비석은 하얀 모퉁이 얼룩덜룩 묻어 있어 글자를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였다.

묘소로 들어가는 입산로는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다. 나무 계단 대부분이 썩어버렸으며, 일부는 아예 부러지거나 유실됐다. 또 10cm 크기의 녹슨 대못이 곳곳에 튀어나와 참배객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묘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묘소는 마을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나오는 ‘동네 뒷산’에 있는데, 마을 어귀에는 안내판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산 입구에 가서야 ‘양한묵선생 묘소’라고 적힌 30cm 크기의 조그만 안내판을 볼 수 있었다.

묘소 인근에는 3기의 봉분이 뒤섞여 있어 봉분 옆 안내판이 없으면 이 곳이 양 선생의 묘소라는 사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더욱이 안내판에도 양 선생의 공적이 4줄짜리 글로 짧게 적어둔 것이 전부라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양 선생 묘소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화순군 문화재 포털 사이트 ‘디지털화순문화대전’에서는 “양한묵 무덤은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매년 문중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제향을 올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향은 지난 1965

년 화순읍 광덕리 남산공원에 세워진 ‘양한묵 선생 추모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객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묘소를 참배한 김석원 전남학속 관장은 “학생들을 데리고 묘소를 참배하러 갔다가 처참한 관리 상태를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있게 해 준 분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의미를 살려주진 못할 망정 봉분이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양 선생은 해남군 출신으로 1904년 동학에 입교해 화순군 도곡에서 천도교 도사로 활동했다. ‘대종정’ 등 20권의 천도교 교리서를 저술했으며 교리강습소를 개설해 계몽 운동에 힘썼다.

양 선생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태화관에 열린 독립선언식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형무소에서 모친 고문을 받은 양 선생은 같은 해 5월 26일 순국했으며,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하게 육사한 인물로 남았다.

양 선생의 유해는 서울 수철리(현 성동구 금호동)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가 1922년 천도교 교인들 주도로 현재 위치한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 아산으로 이장됐다.

/화순=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초라한 민족대표 묘소

3·1절 104주년을 맞은 1일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 양한묵 선생 묘를 찾은 참배객이 파헤쳐진 봉분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묘 앞에는 참배객들이 헌화한 국화꽃이 놓여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李탈표’ 후폭풍 ... 흔들리는 민주당

친명·비명 분열 뎀 총선 공멸
위기 극복 정치력 발휘 미지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 표의 후폭풍에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정면충돌 등 내부 분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과연 위기를 극복할 정치력이 발휘될 것인지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내년 총선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나타난 무더기 이탈 표의 여진에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친명 진영에서는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이라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비명 진영이 본분을 망각하고 ‘뒤통

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비명 진영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는 않겠으나, 이번 사태를 주도한 비명계 핵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직적 대응은 없었으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삼삼오오 모여 표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정국을 타개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번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국민의힘 등 여권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표는 지난 28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번 일이 당

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 전체 의원의 뜻을 당을 위한 것임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당 대표와 지도부는 민주당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장,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놓고 친명과 비명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는 정치적 탄압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여전히 폭발성은 크다.

여기에 정당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천률 변경과 당원 평가가 포함되는 당무 감사 등도 친명과 비명 진영의 대립을 부를 수 있다. 오는 4-5월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도 친명과 비명 주자 간의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 검찰의 쫓개기 구속영장 청구도 두어 달 내에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대표가 난국을 풀어갈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친명과 비명 진영의 대립이 가져올 내년 총선 구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에 냉담한 지역 민심을 고려할 때, 친명과 비명 진영의 내부 갈등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친명, 비명을 떠나 민주당의 분열에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민심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넘어 진보진영의 전체 지형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